Economy p/08



갤S5 출시 실망 성적표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제2945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예상대로 프로야구 열기 '후끈'

"잠자는 서울 깨우는 시장 되겠다"

서울시장 도전 정몽준 의원 인터뷰

용산 개발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 쟁쟁한 여권 후보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다. 본선 경쟁 상대로 꼽히는 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도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소식으로 6·4 지방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만들었던 7선의 새누리당 정몽준(사진) 의원의 베테랑 정치 경력과 인지도의 행보다.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정 의원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서울시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만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서울이 침체돼 있다는 평가가 있고 서울 시민들이 막연하나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이번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언급하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서울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줄고, 서울의 활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박원순 시장은 인정을 안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있어도 2030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서울 인구는 1100만 명으로 가다가 1000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인터뷰 내내 본선 경쟁 상대인 박원순 시장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시정 평가는 용산 개발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 백지화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다.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용산 개발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재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업이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3분의 1이 반대하면 안 짓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기본 원칙은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해야 한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무게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안 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안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한다. 서울 시민의 관심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다. 박 시장은 공동체 사업 등 본인의 관심사에만 관심이 있다. 서울 시민이 관심이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과 교통 등의 '공간 복지' 개념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의 유휴부지 100여 곳 가운데 30곳은 허가를 해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시에서는 주변 땅값이 올라가니 해준다고 하는데 땅값이 오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개발 허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공공성·공익성 높은 사업의 절반을 내줄 것이다. 15개까지 해주려고 한다"며"공공성·공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언을 통해 높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서울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서 계속>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개막일인 29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잠실·인천 문학·대구 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이 메트로신문의 프로야구 특별판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학생, 전공비해 영어공부 2배 더 투자

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전공과목 공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 11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교육 투자에 따른 희망 임금과 취업 선호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주간 학습시간은 평균 8.89시간에 달했다.

이 중 영어 공부에 3.94시간을 투자해 가장 길었고 ▲공무원시험 공부(2.40시간) ▲전공 공부(1.98시간) ▲제2외국어 공부(0.51시간) ▲교육 훈련(0.10시간)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이 이 같은 공부에 들인 사교육 비용은 연간 평균 20만5000원이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0만 2000원을 영어 사교육에 썼고,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에는 4만8000원을 투자, 영어에 들인 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시험을 위한 사교육에는 4만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사교육 비용은 여학생이 30만1000원으로 남학생(14만9000원)의 두 배가량 됐다.

남학생은 영어(7만9000원)와 전공(3만9000원)에, 여학생은 영어(14만1000원)와 공무원시험(6만7000원)에 각각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썼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새로운 형태 핵 실험 할수있다"

북한 외무성, 유엔 안보리 규탄성명에 반발

북한이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은 '연례적'이니 뭐니 하면서 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다. 이에 대비해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각각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 드는 경우에 대처해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다 준비돼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맞서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나 수소폭탄 실험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로켓 발사 등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협상 테이블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북·일 1년4개월만에 공식협상 북한과 일본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4개월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시작, 양국 수석대표인 북한 송일호(왼쪽)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중 북한대사관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비서실장에 동생 김여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7)이 지난해부터 김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노동당 서기실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김여정이 장성택 숙청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쯤부터 노동당 서기실장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일가 세습 체제에서 서기실장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 역임해왔지만, 직계가족이 맡은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유사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은 정책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최고지도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생필품 구입 및 공급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서기실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내각 등 주요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 문건을 김 제1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김민준기자

안철수 박 대통령과 기초공천 회담 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께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회담을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를 제외하고 안 대표가 이날 단독으로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의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원래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실리 차원에서 약속을 어기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반대하느냐"며 "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느냐"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새정치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에게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며 양해를 구한 뒤 "국민은 누가 새정치 후보고 누가 낡은 후보인지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기초공천 폐지 서명운동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작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석,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제대로 굴러갈까

원자력·방송법 놓고 대립

다음달 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 창당 이후 대여 전선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여부는 4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손꼽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부터 해결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숙련기술스타'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14~30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숙련기술인과 이를 장려한 사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자와 기업을 접수 받는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명장 35명과 우수 숙련 기술자 50명, 숙련 기술 전수자 10명, 숙련 기술장려 모범 사업체 5곳이 각각 선정된다.

참가 희망자는 공단 24개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대한민국 명장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4일 오후 3시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기 가정 '무한돌봄 복지제' 도입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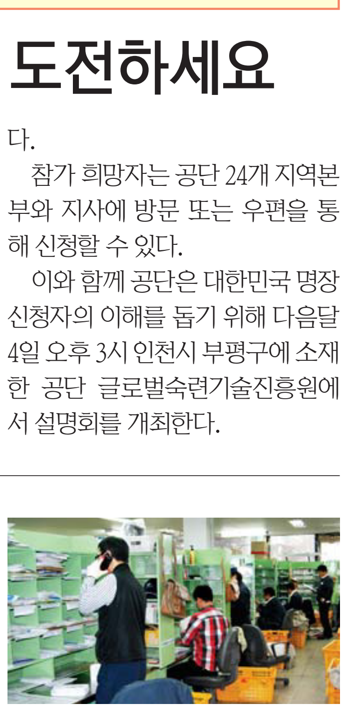
오세훈 전 시장 때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하다 현재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들섬 부지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가서 즐기는 문화·예술 여가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겠다"며 "'의식주' 중 '의'와 '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주택과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26일 대중교통 공약과 관련해 첫차~오전 7시 지하철·버스 이용객에게 요금을 200원 할인하는 '얼리버드(early bird) 서민 교통요금 할인'을 제시했다. 오전 7~8시, 오전 9~10시, 오후 6~7시 이용 승객에게도 100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위기 가정에 대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무한 돌봄 복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장 임기 4년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주말에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웃음) 서울 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담=김태균 경제산업부장·정리=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마포 우편물 서대문청사 이전



서울지방우정청은 31일부터 서울마포우체국 우편물류과를 서대문우체국 청사(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0길 9)로 이전해 마포구 지역 주민을 위한 우편물 배달과 교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마포우체국 내 우편물 분류 작업 공간 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역 고입전형에 성취평가

2015학년 내신성적 6단계로 나눠 적용키로

2015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입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15학년도 서울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 입학에 필요한 성적을 산출할 때 성취평가제를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내신성적을 성취도에 따라 A-B-C-D-E-(F) 등 6단계로 나눠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난 2012학년도에 도입됐다.

또 현행 고입에서는 2~3학년 내신만 반영하지만, 내년도부터 1학년 성적도 함께 넣는다.

검정고시 출신 등은 고입 내신 산출 시험을 치르되 반영 과목은 기존 9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였다.

하나고를 제외한 자율형 사립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는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우선선발제를 없애고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입학전형과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계획은 4~8월 사이 전기고(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 등 17개교)는 학교장, 후기고(일반고·자공고 등 202개교)는 교육감이 발표할 예정이다.

후기고 배정 결과 발표는 내년 2월 6일이며 전기고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모두 오는 12월 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벚꽃과 개나리의 조화 30일 청주시 무심천에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폈다. 무심천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조화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하철 1호선 고장…시민 대혼란 30일 오후 서울지하철 1호선 코레일 소속 인천·수원행 열차가 잇딴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방면 1호선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전기 공급 이상으로 정지해 운행이 1시간여 동안 중단됐다. 곧이어 고장 열차를 차량기지로 견인하던 열차마저 오후 3시19분께 시청역에서 고장으로 멈춰 서는 바람에 오후 5시45분께까지 인천·수원행 1호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고장 사실을 갑자기 전해듣고는 부랴부랴 다른 교통편을 찾느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편백나무숲 조성한다

은평 봉산·천왕공원 6000그루

앞으로 30년 후 서울에서도 잎이 무성한 편백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은평구 봉산과 구로구 천왕근린공원에 각각 3000그루씩 모두 6000그루의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약 5000만원을 투입한다.

편백나무 숲 조성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시는 구간마다 30~200㎝의 다양한 편백나무를 심어 생육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피톤치드의 보고'로 알려진 편백나무는 일본에서 온 나무로 전남 장흥·장성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울산 등 남부지방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으로 2~3년 사이 경기 용인과 부천시 원미산에서도 편백나무 숲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울에서도 잘 자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편백나무 가지의 독특한 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물질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향균력이 있어 암 환자와 아토피 환자에게도 좋다.

/윤다혜기자 ydh@

회식 후 귀가중 사망 "업무재해다"

빠질 수 없는 회사 회식에서 원하지 않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ydh@

공금 횡령한 야구협회 간부 구속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씨가 억대의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을 비롯한 장비 구입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7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협회 주관의 각종 야구대회에 사용하는 공인구 등 장비 구입업무를 맡으면서 지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납품업체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돈이 협회 상부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씨와 업체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명일근린공원 기념식수 행사

서울시 강동구가 강동 아름숲 조성 4주년을 맞아 31일 명일근린공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한다.

구는 구민, 기업체, 각 단체의 접수 신청을 받아 15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

서울시 관악구는 대학 캠퍼스·예비군 훈련장 등을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서울대학교, 관내 기업체 등과 협력해 6주간 금연 집단 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천구 교육특구3관왕 달성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시가 공모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교육특구 3관왕을 달성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3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자치구로 선정됐다.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모집

서울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고양시, 시흥시 등에 마련된 희망서울친환경농장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희망서울친환경농장은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 시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현재 신청이 가능한 곳은 양평군 문호리·수능리, 광주 하번천리, 고양시 원당역·곡산역·화전역, 시흥시 논곡동 농장 일대다.

서울시가 농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모종·씨앗·유기질 비료·친환경 방제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서울시가 3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은 구획당 3만~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철학자 데카르트 태어남

1596년 3월 31일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소도시 라에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수학자로서 기하학에 대수적 해법을 도입한 해석기하학을 창시했고 철학에서는 주요 저서인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성 중심의 합리론으로 중세 신학을 극복해 바뤼흐 스피노자와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에 이르는 근대 합리주의를 탄생시켰다.



metro Nicaragua

Acoso sexual callejero intimida a las mujeres



공포감 1위 '따라다니는 남자'

매력적인 여성 주변에는 남자들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니카라과 '공공 정치 전략 연구소'가 실시한 '2014 시민 안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추파를 던지며 따라오는 남자'를 첫손에 꼽았다.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37%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가장 두렵다고 답했다. '음흉한 시선을 보내는 남자'(28%)가 2위로 뒤를 이었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신체를 접촉하려는 남자'(24%)가 3위를 차지했다. 휘파람을 불거나 애칭을 부르는 남자들도 비난 대상에 올랐다.

길거리 사고나 무장 강도에 의한 피해가 걱정된다는 대답은 각각 1.3%와 0.8%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다.

엘비라 쿠아드라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여성 단체들이 예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라면서 "하지만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돼왔고,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니카라과 사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벨리아 아구르시아 리바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지구 관측 위성망 구축 나선다

중국 공정원,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건 계기

중국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을 계기로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과학 분야 최고 학술기구인 중국공정원이 하루속히 세계적인 위성 관측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치톈허 중국과학원 원격탐지·디지털지구 연구소 교수는 "전 세계적인 관측망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수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위성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수색 성과가 없자 중국 당국자들도 이 같은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5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인공위성 숫자는 국가 기밀로 정확하게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치 교수는 미국이 약 50개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 중국이 위성 50개를 추가로 발사하면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위성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다.

신문은 위성 한 대를 발사하는 데 약 4억 위안(약 689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2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에는 위성발사센터 확충 및 위성이 수집한 자료의 전송 속도 문제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하리 아맛 샤(53) 기장의 집에서 압수한 모의 비행장치에서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모의 비행장치 분석에서 의심스러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경찰의 확인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여객기 실종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빠 찾아 삼 만리' '아빠 찾아 삼 만리'에 나선 소녀 저지 바르가스(10·아래)가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부친을 끌어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저지는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로 미국 내 이민보호소에 수감된 채 해외 추방될 처지에 놓인 아빠를 도와달라며 바티칸까지 찾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TV를 통해 저지와 교황의 만남을 지켜본 친척의 도움으로 그의 아버지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초콜릿재벌 대권 눈앞에



우크라이나의 앞날은 '초콜릿왕'의 손에 달렸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초콜릿 재벌 출신 정치인 페트로 포로셴코(48·**사진**)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비탈리 클리치코는 이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포로셴코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포로셴코는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25%의 지지를 받아 클리치코(9%)와 율리아 티모셴코(8%) 전 총리를 크게 앞섰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경제장관 등을 역임한 포로셴코는 제과회사 '로셴'의 창업자다. 그는 구소련 붕괴 무렵 코코아 열매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 로셴을 동유럽 최대 제과회사로 키웠다.

그는 중립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세동맹' 가입을 압박, '로셴 초콜릿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친서방 측으로 돌아섰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조선미기자

국민은행 3개월간 청약업무 등 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청약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 당국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횡령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억여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해 낸 바 있다. /박정원기자 pjw89@

30대 그룹 현금성 자산 20조 증가

지난해 158조… 대외 불안에 투자 축소 결과

지난 2013년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20조원(18%) 증가한 15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 엔저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국내외 불안한 경영 환경이 계속되자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 비축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CEO스코어가 금융사를 제외한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사의 현금성 자산(현금+단기 금융상품 합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7조7000억원으로 전년 133조3600억원 대비 18.3% 증가했다. 30대 그룹 중 현금이 가장 많은 곳은 60조원의 삼성이었으며 전년도 42조8600억원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 2위는 현대차그룹으로 34조6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14.2%가 증가했으며 3위인 SK그룹은 10조960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톱 3'의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총 110조4800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70.1%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66.3%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4위는 LG그룹으로 9조1400억원, 5위는 포스코그룹 7조6200억원이었다. 포스코는 그룹 전체 자산 규모가 6위로 롯데에 뒤지지만, 현금 보유량에서는 한 계단 높은 5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그룹(3조9400억원), GS그룹(3조1800억원), KT(2조3200억원), 한진그룹(2조1300억원), 현대중공업(1조9200억원) 등이 상위 '톱 10'에 올랐다.

또 상위 10대 그룹의 총 현금성 자산은 139조4000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88.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2년 85.5%(114조원)보다 2.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외에 대림그룹(1조8400억원), CJ그룹(1조5600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1조5000억원), 동국제강그룹(1조4500억원), 두산그룹(1조4400억원), 현대백화점그룹(1조2900억원), 현대그룹(1조600억원), 한화그룹(1조300억원) 등이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 보유량이 가장 적은 곳은 동부그룹으로 2500억원에 그쳤고, 신세계그룹도 3750억원으로 그룹이 해체된 STX(3840억원)보다 낮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4300억원), 대우건설(5300억원), LS(5600억원), 효성(5700억원), 영풍(8700억원), OCI(8800억원), 에쓰오일(9400억원) 순이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MS '아이패드용 오피스' 하루만에 모바일 점령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바일 시장에서 대반격에 나섰다.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를 외치며 지난 2월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동안 애플과 구글에 밀려 구겼던 자존심을 단번에 회복하기 위해 아이패드용 오피스 애플리케이션 전격 출시라는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델라 MS CEO가 2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MS의 아이패드용 오피스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앱스토어 상위권을 휩쓸었다고 보도했다.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워드(Word)가 1위에 올랐으며 수식·재무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엑셀(Excel),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인기는 아이패드용 MS 오피스가 단순히 윈도 버전을 이식한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터치 중심으로 이뤄진 장점 덕분으로 분석된다. 사진·객체 조작, 레이아웃 수정 등 모든 조작을 터치로 할 수 있다. 단 오피스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MS오피스 365를 구독해야만 한다.

WSJ는 아이패드용 오피스의 이 같은 강력한 데뷔는 MS가 모바일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방에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홈플러스 '친환경 치킨' 7980원 홈플러스는 야구 시즌을 맞아 야외 활동과 운동 경기 관람을 위해 소용량 또는 간편한 야외 나들이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동김해, 밀양, 영도, 서귀포 등 4개 점을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는 야외 활동 시 가장 수요가 많은 치킨은 4월 9일까지 '홈플러스 친환경 닭으로 만든 후라이드 치킨'은 798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이통3사처럼 너도나도 멤버십 혜택

알뜰폰 업계 서비스 강화

알뜰폰(MVNO) 업계가 보다 빠른 성장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이 기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던 데서 한 발 나아가 다양한 고객 서비스 강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인 '헬로모바일'의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CJ 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CJ 원 멤버십의 경우 CGV·빕스·비비고·뚜레쥬르 등 CJ 브랜드 이용 시 추가 적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포인트로 혜택을 돌려준다. 가입자는 CJ 원 제휴사 중 2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3~50%를 포인트로 적립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CJ헬로비전의 케이블방송·인터넷 전화 등과 결합 판매를 통해 이통 3사와 가격·서비스 경쟁에 맞서고 있다.

에넥스텔레콤도 카드사와 제휴해 고객 멤버십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말께 선보일 계획으로 특화 콘텐츠 제공 및 할인·적립 등 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기획,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알뜰폰 전용 온라인 쇼핑몰 '티플러스몰'을 오픈,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이벤트도 제공한다.

SK텔링크의 '세븐모바일'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제를 결합한 '롯데인스마일리지 요금제'를 출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81.00	(+3.03)
코스닥	544.10	(+2.64)
금리(국고채 3년)	2.87	(−0.01)
환율(원·달러)	1069.00	(−3.80)

뉴스&뉴스



위스키 '가쿠빈' 출시 산토리 위스키 브랜드인 '가쿠빈'을 수입 유통하는 선보주류교역은 30일 가쿠빈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가쿠하이볼' 마리아주를 선보였다. 가쿠하이볼은 칵테일의 일종으로 위스키에 탄산수를 타서 만드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부착형 나노소자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나노입자연구단'의 김대형 교수팀(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이 나노 물질을 사용해 '피부부착형 차세대 웨어러블 나노소자'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 질환 발병 여부의 상시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정보의 패턴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필요 시 피부에 약물을 투여해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현대重 다음달 5일 2차 전형

●현대중공업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실무능력평가를 다음달 5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의 2차 실무능력평가는 한자시험(인문계), 공학기초시험(이공계), 직무적성검사로 이루어진다. 이어 임원진의 인성면접과 건강검진으로 2차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두탁기자

로또복권 제59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3	14	30	38	39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964,676,2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5,014,829
3등	5개 숫자 일치	1,665,92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애먹이던 동남아 펀드 '눈부신 플러스'

베트남·인도네시아 올들어 20% 올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지난해 크게 출렁였던 동남아시아 펀드가 올 들어 활짝 웃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일면서 증시도 호조를 보였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36개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플러스 성과를 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IBK베트남플러스아시아증권A(주식)'로 연초 대비 20.17% 올랐다.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종류A'도 18.67% 상승하는 등 베트남 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 펀드의 수익률도 호조를 보였다.

'삼성인도네시아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파생형)_A'와 'NH-CA인도네시아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 Ce'가 올 들어 각각 19.41%, 19.33%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인니말레이증권자투자신탁1(주식)(A)'도 9.91%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 기대감이 증시를 떠받친 영향이 컸다.

베트남 호찌민거래소의 VN지수는 최근 거래량 급증과 함께 2주째 상승했다. 하노이거래소의 HNX지수 역시 2주 연속 올라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17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소식 등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 역시 최근 강세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5.8%로 예상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동남아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세가 탄탄할 것으로 전망한다.

◆ 내수 급팽창 전망 '장기 호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동남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5.4%씩으로 지난 10년간 연 5.5%씩 유지하던 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동남아인들의 소비 패턴과 수준이 한국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가는 경향도 보인다"며 "동남아의 내수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중산층 인구가 4억 명으로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베트남 펀드에서 쪽박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동남아 펀드에 투자하길 꺼리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 차익실현 부담 '단기 악재'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베트남 VN지수가 2009년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600선을 웃돌면서 차익 실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각종 호재가 증시 강세 분위기를 뒷받침하겠지만 외국인의 '팔자'세 지속과 차익 실현 부담 등으로 VN지수가 600선 위에서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증시도 미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급격한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81억 '연봉왕' 누군가 했더니!

젬백스 이익우 대표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았던 상장사 임원은 코스닥 기업인 젬백스&카엘의 이익우 대표로 8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 2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등기이사 가운데 연봉의 왕은 줄기세포와 항암 백신 개발 사업을 하는 젬백스&카엘의 이익우 대표다.

이 대표는 젬백스&카엘에서 지난해 81억79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급여 1억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80억원에 달했다.

코스닥 기업 중 등기이사 보수가 5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35개사로 이 가운데 14개사가 바이오와 정보통신(IT) 업종이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박동현 메지온 대표가 12억6000만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9억3000만원의 연봉으로 5억원 이상이었다. IT기업 가운데선 김원남 파워로직스 대표의 작년 연봉이 1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주요 재벌그룹 등기이사들이 아직 지난해 보수를 신고하지 않아 마감시한인 31일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기업 임원들의 연봉 순위는 다소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박정원기자 pjw89@



여름 얼려 줄 '천사의 빙수' 엔제리너스 커피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고급 원재료를 풍성하게 올린 '빙수 4종'을 출시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팥빙수''베리빙수''더치커피빙수' 3종을 리뉴얼한 메뉴에 올해 새롭게 추가된 '망고빙수'까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엔제리너스 커피 제공

내일부터 은행·보험·카드 전화영업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메시지 자서비스로 통지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박정원기자

자기앞수표 '보라-초록' 변환돼야 진짜

위변조 방지요소 보강

은행권은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 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 요소에 색 변환 잉크를 신규 적용하고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적용된 위·변조 방지 요소인 무궁화 은화, 돌출 은화, 형광색사, 평판 미세 문자, 변색 용지 등 이외에 색변환 잉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라색과 녹색을 오가는 색 변환 잉크를 사용, 수표를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 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표 발행번호 식별성 강화를 위해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지급 제시된 수표가 발행 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발행 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 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갤S5 깜짝 출시' 실망스러운 성적표

SKT 당일 신규가입 감소… 신제품 효과 실종
초도물량 부족·보조금 없는 구입 거부감 탓

갤럭시S5 마법은 없었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5 조기 출시에도 SK텔레콤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50%의 업계 1위를 지키려는 SK텔레콤과 시장 부진을 타개하려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 승부수를 던졌지만 극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SK텔레콤은 8482건의 신규 가입 실적을 올렸다. 알뜰폰을 제외한 신규 가입은 5833건이다. 갤럭시S5 출시 당일임에도 신규 가입 대폭 증가는커녕 감소 추이를 보였다.

24일 알뜰폰을 제외한 신규 가입 1만7118건에 비하면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이다. 주말 신규 가입 실적이 들어가는 월요일 실적이 통상 제일 높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큰 하락세다. 25일 신규 가입 건수는 6013건, 갤럭시S5 출시 전날인 26일은 6020건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동시 영업정지 중이며 단말기 2년 이상 사용자 및 고장·분실 고객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갤럭시S5 출시 당일 KT 전체 신규 가입자는 1690명, LG유플러스는 128명이었다.

■ 갤S5 출시 주간 SKT 신규 가입자

	KT→SKT	LGU+→SKT	총계
24일	9588	7530	17118
25일	3349	2664	6013
26일	3345	2675	6020
27일	3222	2611	5833

※알뜰폰 제외 /자료: KTOA



당초 갤럭시S5는 다음달 11일 전세계 출시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영업정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7일 갤럭시S5의 조기 출시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KT와 LG유플러스도 갤럭시S5를 동시 출시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 영업정지를 시작한다.

시장에서는 갤럭시S5의 출시 부진 원인을 부족한 물량과 고가의 출고가로 분석했다.

갤럭시S5가 예정 출시일보다 국내에서 2주 먼저 나오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이다. 업계는 SK텔레콤이 확보한 갤럭시S5 초도 물량을 약 1000대로 파악했다. 물량 공세를 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조금 없는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낯선 심리도 걸림돌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 출고가를 전작 갤럭시S4보다 3만원가량 낮은 86만6800원으로 책정했지만 SK텔레콤의 10만원 할인 프로모션으로도 보조금 관행을 극복하긴 힘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의 통신 장애 사건도 신규 가입 유입률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통신 장애 사태로 SK텔레콤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보조금 없는 단말기 구입을 꺼리는데다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갤럭시S5 가격이 더 저렴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KT 데이터 무제한·LTE 로밍 국가 확대

KT가 '데이터 로밍 무제한' 및 '롱텀에볼루션(LTE) 로밍' 국가 수를 확대한다.

KT는 해외 로밍 고객의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자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데이터 로밍 무제한과 LTE 로밍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는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케냐 등 16개국을 추가하며 국내 최다인 133개국에서 제공하게 됐다. LTE 로밍의 경우 기존 국내 최다인 15개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하면서 16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KT는 바다 위 선박에서도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 로밍' 제휴도 92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크루즈 로밍은 별도의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로밍 서비스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장윤희기자



LED 조명도 삼성! 삼성전자가 이달 30일 시작돼 다음달 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명·건축박람회인 '라이트 앤드 빌딩 2014'에 참가해 디자인과 혁신성을 갖춘 약 20여 개의 다양한 LED 조명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제공

'알뜰폰 선구자' 올 40만 순증 목표

에넥스텔레콤 문성광 대표 "멤버십 혜택도 준비중"

"지난해 고객 접점을 만들기 위해 우체국, 편의점 등 판로를 확대했다면 올해는 자체 콘텐츠로 승부를 걸겠다."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에넥스텔레콤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판로 확대로 인한 브랜드 홍보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함께 가입자 순증 40만 명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넥스텔레콤은 알뜰폰(MVNO) 사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12월 회사를 설립한 뒤 2004년 3월 KT(당시 KTF)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에넥스텔레콤은 2012년에는 알뜰폰 업계 최초로 20만 가입자를 돌파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1년간 어떤 어려움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다"며 "특히 지난해 우체국을 통한 위탁 판매, GS25·GS슈퍼마켓 등 편의점 판매, 에넥스텔레콤 자체 브랜드 홈(WHOM) 매장 설립 등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에넥스텔레콤은 올해 고객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판로를 확대한 우체국·농협·편의점 등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한편, 현재 45명 수준인 고객서비스센터 인원을 연내 8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미디어 사업과 연계해 알뜰폰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문성광 대표는 "올해 고객 서비스 강화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진영기자 son@

그는 이어 "알뜰폰은 이동 3사에 비해 서비스가 약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력해 멤버십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체크카드도 소장펀드도 'able'이 정답!

현대증권 필수 절세상품



able 체크카드-4개 업종 집중혜택+OK캐시백 현금상환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가입만해도 수익률 6.6% 확보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 부쩍 줄어든 고객이라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목이 마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세 상품과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대증권은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 '에이블(able) 카드'뿐만 아니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이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줄어든 반면 체크카드는 기존 소득공제율 30%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0%로 다시 한번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테크 필수 사항이 됐다.

◆혜택 설계 돋보이는 체크카드

이에 현대증권은 최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증권사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설계한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인 '에이블 카드'를 출시했다.

현대증권 에이블 카드는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 위주의 할인 혜택과 OK캐쉬백 포인트의 현금 상환 서비스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 2주 만에 8만 계좌를 돌파했다.

에이블 카드는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4가지 업종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유 할인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SK주유소를 이용하면 OK캐쉬백의 16배 적립 혜택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주요 백화점, 전국 택시·KTX 할인 선택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형 할인 서비스의 경우 연 4회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며 청구 할인 방식으로 카드 승인 후 약 2~3일 후 결제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단 선택한 서비스의 할인 혜택은 월간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 한도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현대증권은 OK캐쉬백 포인트와 제휴를 맺고 기존 현대증권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되던 현대증권 포인트와 함께 에이블포인트를 론칭, 전국 4만5000여 개 OK캐쉬백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받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특히 신청 고객에 한해 매월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를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OK캐쉬백 포인트 현금 상환 서비스'도 제공한다.

◆결제 계좌만 이용해도 고금리

에이블 카드의 결제 계좌인 '현대 에이블 CMA'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입금 및 에이블 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적립식 금융 상품 50만원 이상 자동대체 매수 또는 통신료·카드대금 등 각종 결제대금을 월 5건 이상 자동 결제 신청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 고금리를 제공한다.

또 고금리 제공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에이블 카드 전월 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 금융기관의 CD·ATM 출금 및 이체, 그리고 인터넷·모바일·휴대전화 등 온라인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편리한 생활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대증권이 출시한 '에이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절세 효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100세 시대 은퇴 준비'가 과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에이블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층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장기 적립식 펀드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 상품이다.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 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에이블 펀드' 시중 금리 2배 효과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액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항목이다.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즉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시중금리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애플 '분할형 카메라' 등 특허 5개 추가

아이패드용 '터치 키보드 부착 커버'도 주목

애플이 새로운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후 혁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새 핵심 특허를 5가지나 등록했다.

30일 애플 전문 블로그 미디어와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차세대 아이폰에 적용하기 위한 분할형 카메라와 위치기반 서비스 보안 기능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2개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된 전자기기'라는 이름의 이 특허는 이미지 센서가 2개인 카메라를 장착해 광도, 밝기, 데이터, 채도, 색상 정보를 수집한다.

사용자가 보는 사진은 각각의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를 결합해 촬영된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2개로 분할하고 2개의 모듈로 제작하면 1개의 모듈에 2개의 센서를 내장하는 것보다 단말기를 더 얇게 만들 수 있다.

'적응형 보안 프로파일과 같은 선택을 위한 방법을 가진 전자기기'에 대한 특허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사용 위치에 따라 특정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시나리오를 가진 보안 프로그램으로 집이나 회사에서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지문인식 등 고난도 인증을 거치는 것이다.

애플은 또 디스플레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러스 특허도 확보했다. 필기구 촉의 길이를 조절해 농담, 굵기 조절 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특히 붓의 질감 효과를 낼 수 있게 여러 개의 가느다란 촉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화질과 색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퀀텀닷(QD·양자점)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보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애플은 이를 미국 특허청에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백라이트 조광제어 기술'로 등록했다. 이는 기존 레티나 디스플레이 대비 색 재현성이 90% 이상 향상되는 기술이다.

지난 28일 특허 등록한 '터치 키보드 부착 스마트 커버'는 아이패드의 상품성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스마트커버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키보드가 커버에 내장돼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언제든 키보드가 필요할 때 커버에서 떼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기자 zen@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감동

내일 예술의전당서 개막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15년째 후원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14 교향악축제'(사진)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매년 4월 전국 20여 개의 오케스트라가 참가하는 교향악축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벽을 허무는 시도와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국내 최고의 클래식 축제다. 지난 25년간 교향악축제는 매년 초청 악단과 연주 프로그램, 협연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며 변화·발전해왔다.

올해 초 KBS교향악단에 취임한 음악감독 요엘 레비의 지휘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교향곡 3번 '영웅' 등의 작품이 2014 교향악축제의 막을 올린다. 18일 폐막 연주는 지휘자 임헌정이 25년간 몸담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고별 무대다.

또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상임지휘자로 선임돼 화제를 모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단장 성시연,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여자경 등 두 명의 여성 지휘자들을 통해 클래식계의 여성 파워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와 김대진이 이끄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협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향악축제는 한화그룹이 후원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년간 관람 인원만 약 32만 명에 달한다. 누적 참여 교향악단 수는 228개로, 국내 음악가의 연주 무대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향악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내 클래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일시적 2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 10문 10답

노령연금과 상관 없어

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 7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이다.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인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10가지 궁금증과 해답이다.

①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 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 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마켓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 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젊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 기간형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 기간형을 이용해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⑦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 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목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목돈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 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 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⑩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저금리 미끼 예치금 요구 일단 대출사기 의심부터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일상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대출 광고를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내세우지만 이런 업체들은 실상은 불법 대부중개업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각종 비용을 요구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①SNS 발신번호로 연결 금물

대출 광고를 발송한 문자메시지상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 상담원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광고에 나온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뒤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저금리 전환에 속지 마

대출모집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불법 업체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먼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해당 모집인의 등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회시스템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인 본인이 맞는지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대출 앞세워 돈 요구하면 사기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산 비용이나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업체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개인정보 건네면 사기 피해 가능성

대출 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과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보낸다면 곧바로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각종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대출거래 승인이나 자금 이체에 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에 인증번호를 왜 발송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⑤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겨 명의 도용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한 '엠세이퍼 서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 상담(국번 없이 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1@



노을공원에 'ING생명 어린이 숲 4호' ING생명은 28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 4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ING생명 어린이 숲 4호'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100명의 임직원 및 영업 가족이 모여 기아대책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꽃나무인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 30여 종을 선별해 노을공원 산책로에 심었다. ING생명은 서울 시민들에게 더 나은 녹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을공원, 응봉공원 등에 2011년부터 해마다 'ING생명 어린이 숲'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ING생명 제공

현대건설 나눔은 계속된다

- 급여 끝전 모으기
- 집수리 봉사 활동

현대건설이 국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매월 월급 끝전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해피 투모로우(Happy Tomorrow)'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자활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 중 학교 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중이다.



작년 7월 수해 취약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족한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작년 7월 수해 취약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집수리로드 3기)을 발족하고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바 있다.

아울러 지구촌 곳곳에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잇달아 펼치고 있다. 케냐, 필리핀, 카자흐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등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현대건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3년 12월 기준 총 2523건의 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임직원 1만3750명이 총 3만9353시간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숲길서 온로드로 무대 바꾼 'SUV 늑대'

동급 유일 트리플 터보엔진…정숙성+스포티함
시원한 가속·끌리는 연비 '고성능 SUV' 중 최고



■ BMW X5 M50d

SUV를 타는 이들의 95% 정도는 온로드만 달린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험로 주행을 위해 설계된 차를 타는 사람들도 오프로드를 갈 일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온로드 주행에 초점을 맞춘 고성능 SUV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 시승한 BMW X5 M50d도 그런 차 중 하나다. 포르쉐 카이엔 S 디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대결하는 이 차는 X5 라인업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지닌 차다.

외관부터 일반 모델과 차이가 있다. 프런트 에어 인테이크(공기 흡입구)는 더 크게 설계됐고,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좀 더 스포티해졌다.

M50d의 가장 큰 특징은 동급 차종 중 유일하게 트리플 터보 엔진을 얹었다는 점이다. 최고 출력은 381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75.5kg·m에 이른다. 강력한 엔진이지만 공회전이나 저속에서의 정숙성은 매우 뛰어나다. 그러다가 풀 가속을 시도하면 양에서 늑대로 탈바꿈하며 성격을 드러낸다. 0→100km/h 가속 시간은 5.3초로 웬만한 스포츠 세단보다 빠르다.

3개의 터보차저는 엔진 회전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터보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가속 지체 현상(터보 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변속 충격이 적기 때문에 동승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일이 없다.

물론 출력만 비정상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 강해진 출력에 맞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급격한 움직임이나 코너링에서 차체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모습이 믿음직하다. 이러한 성능을 가진 차는 M50d 외에 카이엔 S 디젤 정도가 유일하다. 카이엔 S 디젤은 382마력으로 출력이 거의 비슷한데, 최대 토크는 86.7kg·m로 M50d를 능가한다.

카이엔 S 디젤은 기본 가격이 1억 870만원이지만, 한국형 패키지를 장착하면 수천만원이 훌쩍 뛴다. 게다가 한국형 패키지에도 옵션이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거의 2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차를 소유할 수 있다. 반면에 M50d는 1억3240만원, 1억3790만원 두 가지 모델에 대부분의 옵션이 충분히 장착돼 있다. 성능에 비해서 포르쉐의 가격 거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경제성까지 겸비했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M50d는 원하는 가속력을 속 시원히 보여주면서도 좋은 연비를 보였다. 표시연비는 도심 10.9km/ℓ, 고속도로 12.9km/ℓ, 복합 11.7km/ℓ이고, 이번 시승에서는 10.5km/ℓ를 기록했다. 표시연비 기준으로 봐도 아래급인 30d와 큰 차이가 없고, 실제 연비도 괜찮았다. M50d는 고성능 SUV를 찾는 이에게 1순위로 추천할 수 있는 차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튜닝·오토캠핑·모터스포츠…볼거리 넘친 車 마켓



<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율이 가장 낮은 SUV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싼타페CM	1,630	1,820	1,900	2,230	-
	투싼ix	1,660	1,670	1,760	2,030	2,150
기아	쏘렌토R	1,850	1,960	2,110	2,330	-
	스포티지R	-	1,810	1,850	2,030	2,180
삼성	QM5	1,440	1,590	2,050	2,170	2,450
쌍용	코란도C	-	-	1,790	1,870	2,000
폭스바겐	티구안	2,450	2,640	3,140	3,340	3,940
BMW	X1	-	3,160	3,480	3,640	4,260
	뉴X3	-	-	4,370	4,960	5,390
지프	랭글러	2,690	3,140	3,210	3,680	3,560
아우디	Q5	3,700	3,900	4,340	4,480	6,35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오토모티브위크 막내려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2014 오토모티브위크(Automotive Week 2014)'가 28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 및 야외에서 열렸다.

오토모티브위크는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8회차를 맞았다. 초창기에는 부품업체 위주의 전시회였으나, 올해는 튜닝쇼와 오토캠핑 관련 전시회가 함께 열리면서 총 230여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5000㎡의 면적에서 펼쳐졌다. 이 전시회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 B2B, B2C 관련 비즈니스를 통합해 전시했다.

튜닝, 업그레이드 커스텀, 모터스포츠 트렌드를 보여주는 더 튜닝쇼는 국내 튜닝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또한 오토서비스 코리아는 자동차 정비, 주유 및 서비스 관련 제품과 기업들이 참가했고 캠핑카, 캐러밴 및 캠핑 아웃도어 시장을 조망하는 오토캠핑 등 다양한 동시 개최 행사가 함께 열렸다.

오토캠핑에서는 맞춤형 주문 제작 차량 전문회사인 장커스텀과 특장차 전문 제조업체인 미래에스앤티에서 자동차 튜닝과 오토캠핑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확장형 트레일러를 출품했다.

올해 처음 동시 개최한 자동차 클럽쇼 KMS 2014는 개막 첫날과 이튿날인 28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KMS & HIN 모델 콘테스트 및 댄싱 페스티벌, KMS & HIN 서울 카 콘테스트 및 카 DJ 클럽 파티가 열려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늘어난 관람객에 걸맞게 국제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품목과 부스가 꾸며졌다.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모터스포츠 특별관 및 드리프트 데모런, 최대 80%까지 자동차용품을 할인 판매하는 '블랙 세일' 등 볼거리와 실질적 혜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임의택기자

英홍보 '그레이트 축제' 재규어 랜드로버 참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주한영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영국 국가 홍보 '그레이트 페스티벌(GREAT Festival)'에 영국 대표 브랜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레이트 페스티벌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31일까지 열린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영국 국기 모양인 유니온 잭을 입힌 재규어 F-타입,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대표 차종의 차량 전시 및 로드쇼를 진행한다.

그레이트 페스티벌은 영국의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알리고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영국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총 11개 그레이트 캠페인 우선 국가로 선정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게임을 도박 수준으로 보다니…



뉴스룸에서
박 성 훈
<경제산업부 차장>

지난 26일 CJ그룹은 대형 외자 도입과 관련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계열사인 CJ E&M이 게임 부문인 넷마블을 물적 분할하면서 방송, 영화, 음악·공연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5300억원을 투자해 넷마블의 3대 주주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넷마블이 지난해 매출 4968억원을 올리면서 음악·공연·온라인 사업 부문(2396억원), 영화 사업 부문(2089억원)의 매출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넷마블의 모바일게임이 대박을 기록하면서 CJ E&M이 연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일등 공신이 됐다.

물론 CJ E&M이 여전히 넷마블의 2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넷마블을 이처럼 쉽게 넘긴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향후 모바일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모바일 게임이 하루 평균 3억 건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게임이 페이스북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게임 콘텐츠의 가치를 높게 샀다.

돈 냄새 잘 맡기로 유명한 왕서방(텐센트)은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최고 기업들이 이처럼 좋은 게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게임 산업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왜 CJ는 효자를 남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는 국내 게임 산업을 대하는 정부 및 기관의 자세와 큰 관련이 있다.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다스리려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빚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다.

그룹 총수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CJ 입장에서는 '정부가 길들이기에 나선' 게임으로 돈을 잘 버는 넷마블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 펀드들도 넷마블을 사고 싶었으나 섣불리 실행으로 옮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를 지지하는 당대표, 게임은 창조경제의 일환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외 다른 액션은 사실상 없는 대통령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다.

똥개도 자기집 앞마당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똥개만도 못한 국내 게임의 미래는 어째 이미 결판이 난 것 같아 아쉽다.

새누리당은 강자의 그릇이 못된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공식 출범했다. 지난주 26일 국회 130석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이 탄생한 것이다. 바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1대 1 구도로 민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전 민주당의 색깔이 크게 달라질 만큼 정강 정책에 중도 노선을 강화했다. 4대 비전으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을 제시하며 중도·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신당에 대해 집권 여당은 한마디로 냉소적이다.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을 조금도 감추지 못하며 원색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여유와 아량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창당에 따른 당대표의 축하 메시지는 고사하고 흔한 덕 담한마디 할 줄 모르는 게 새누리당이다.

물론 네덜란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중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까지 처리해주지 않아 앙금도 컸겠지만 강자로서의 의연함은 잃지 말았어야 했다. 대변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줄줄이 극단적인 비판 논평을 내놨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100년 갈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과욕을 부렸으나 정작 '100년 살 아파트'는커녕 가족들이 입주마저 거부하는 '부실 아파트'로 전락하게 됐다"며 부실 아파트에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세 가족이 곁눈질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그 종말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박대출 대변인이 독설을 퍼부었다.

함진규 대변인은 "새정치를 외쳤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선명치 않다"며 "아무쪼록 창당을 계기로 지금껏 입으로만 외쳐온 새정치를 이제부터라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판은 '젠틀맨십'의 타협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다.

지금까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들이 고운 눈길을 주지 않은 점도 따지고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투쟁 일변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야당과 마찬가지 수준에서 이전투구 할 작정인가? 집권 여당부터 '참다운 새정치'의 출발을 위해 작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지율이 다소 높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다.

포토프리즘 불 꺼진 서울시청 주변



지난 29일 오후 '어스 아워: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녁 8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주변 건물들의 불이 꺼져있다. 1년에 한 번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등을 끄는 세계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손진영기자 son@

소통 부족한 '할리우드 촬영'



기자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이 여러모로 떠들썩하다. 촬영 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 한국 영화 역차별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말이 많았는데 촬영 첫날인 30일 마포대교 촬영장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마포대교의 차량과 보행자를 전면 통제한 서울시 측으로서나 언론사와 일반인의 촬영을 금지한 제작사 마블 코믹스로서나 이를 보는 시민들로서나 황당한 일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논란들도 서울시와 마블 코믹스 측의 부족한 의사소통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시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분명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홍보했을 뿐 '어벤져스2'가 어떤 장면을 찍어서 한국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를 촬영 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 촬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만 부각됐다. 역차별 논란 역시 촬영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다.

물론 마블 코믹스로서는 촬영 내용을 사전에 오픈하는 건 금기에 가까운 원칙이다. '어벤져스2'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노력 없이 촬영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

아직 서울 촬영이 13일이나 남았다. 남은 촬영을 잘 마치기 위해서라도 설득력 있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태양의 애무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별로 수줍지 않은 표정이다. 살며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다. 또는 은밀하게 감추어두었던 몸이 행여 드러날까 조심하는 기색조차 없다. 태양의 시선이 각도를 바꾸자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다. 어쩌면 거침없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자신의 미모를 활짝 공개한다.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서로 무척 닮았으나 각기 다른 미소를 짓고 있는 꽃들이 온 세상을 기적의 화원(花園)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봄은 어느새 경쾌한 발걸음의 정원사가 된다. 간밤에 비가 내리쳐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망가질까 하는 걱정도 아침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말끔히 가셨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나에게 오기 전 이미 꽃들을 어루만진 애무(愛撫)의 손길이다. 그래서인지 그 손길에서 벚꽃 향기가 난다.

어루만질 '무(撫)'라는 한자는 없을 무(無)에 손 수(手)가 합쳐진 글자다. 있지도 않은 것을 만진다는 것인지, 또는 뭔가 없어질 때까지 어루만진다는 것인지 뜻 해석에 장난기가 발동한다. 물론 없음 '무'는 이 글자의 소리를 받쳐줄 뿐이나 따지고 보면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것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아픔과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영혼의 마술이 되지 않으려나 싶다.

태양의 애무는 그렇게 지상에 꽃을 피운다. 차갑게 굳어있던 흙 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단잠을 자고 깨어난 기분에 잠긴다. 그러고는 따뜻해진 자신의 몸에서 겨우내 숨겨놓은 비밀을 꺼내 보여준다. 바람 불어 외투를 걸치고 있던 투박한 육신에서, 이토록 화사하기 그지없는 빛이 뿜어 나올지 누가 미처 짐작했겠는가? 냉기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한 존재의 확신을 입증하는 순간이다.

그 꽃들을 피워낸 손길에 온몸을 내맡기는 사람들도 생명의 기력이 마음과 몸에 차들어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건 이내 인간, 그것도 춤추는 자의 체온이 된다. 꽃 춤이다. 우리도 언 땅에 발을 딛고 살다가 우주 저 멀리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햇불이 예까지 이르러 나의 살과 뼈, 그리고 영혼의 온도까지 변모시키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매번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선 계절에 대한 설렘이, 밤새 누구도 모르게 키가 자라는 야생초처럼 아주 미세하게 몸속 저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며 올라온다. 변신을 준비하라는 모양이다.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카오스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으로 들어서는 기쁨이다.

아, 꽃은 내 안에서도 피어나고 있구나.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끝낸다

초기·중기 증상일 땐 도수 운동 치료 도움
말기 접어든 환자 10분정도 고주파로 해결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찾아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 없이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땅김이 심해지면서 다시 유명 척추병원들을 찾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다. 이에 결국 수술을 결심한 B씨는 수술을 반대하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원장은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했다. 이에 김 원장은 간단하게 요추 신경치료 주사 치료를 실시했으며 B씨는 치료 후 병원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이후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현재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도수·감압·운동치료 효과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 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만을 받다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환자일 경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선행한 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최근에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시술이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뼈를 바로 잡아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이며 감압치료는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다. 또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뒤끝 무서운 만성변비…놔두면 큰 병

6개월 이상 불규칙 배변
장폐색·대장암과 연관
반드시 전문의 치료를

일반적으로 변비는 배변 주기가 드문 경우를 말한다. 변의 모양을 봐도 그 증상을 알 수 있는데 변이 매우 딱딱하고 두꺼워 미끈한 모양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역시 변비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등으로 이런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변비를 의심해야 한다.

즉 ▲변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한 경우 ▲대변이 딱딱하게 굳는 경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인 경우 ▲배변 시 잔변감을 느끼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만성 변비로 생각하면 된다. 또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하는 변비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만성 변비에 해당된다.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져

중요한 것은 만성 변비를 단순한 증상으로 오해하지 말고 질환으로 인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 변비 환자들이 치료에 소극적이라 만성 변비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은 치질과 장폐색이다. 만성 변비로 인해 변이 딱딱해지면 배변 시 강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항문 주위 조직이 변성돼 치질이 생길 수 있으며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도 흔하게 발생한다. 장폐색은 변이 장을 틀어막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극심한 복통 및 구토 등과 함께 쇼크 상태를 가져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만성 변비와 대장암이 연관이 있다는 의학계 연구가 최근 발표됐으며 이외에도 만성변비와 함께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압박감·복통·잔변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구병원 송기환 부원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만성 변비 환자들이 만성 변비는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치료를 포기한다. 하지만 최근에 장운동 개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만성 변비 치료제가 출시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만성 변비를 관리할 수 있게 됐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통풍 힘든 스키니진 자제를

질염 예방 하려면

요즈음같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에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서 불쾌한 냄새, 분비물 증가, 가려움 등이 발생하기 쉽다. 최근 국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감한 부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스키니진·레깅스·스타킹 등 꽉 조이고 통풍이 되지 않는 옷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착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습한 환경은 각종 세균의 번식을 증식시켜 여성 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땀·비 등에 젖은 옷은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 내 산도 균형을 해칠 수 있는 알칼리성 비누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질 내 유익한 균 회복에 도움이 되고 냄새와 가려움증, 분비물 등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여성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김현영 산부인과 전문의는 "단순 세정제보다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노베타딘' 등의 의약품을 사용해 질염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질염을 관리할 수 있다"며 "또 질염의 소견이 보인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야구음료’ 포카리스웨트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가 오는 29일 2014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야구 공식 음료로 활동에 나선다. 올해로 15년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인연을 맺은 포카리스웨트는 이번 시즌 페넌트레이스와 올스타전·포스트시즌을 포함한 각종 KBO 행사에 공식 음료로서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을 위해 포카리스웨트 키즈존을 운영하고 관객들을 위한 포카리스웨트 러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동식 동아오츠카 KBO 담당자는 “격렬한 경기와 더위에 지친 선수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선수와 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현미력&유산균 패키지

발효 전문기업 푸른친구들이 최근 출시한 ‘내 몸의 하루 유산균 플러스’ 2박스와 유기농 발효미강과립 ‘현미력’ 3박스로 구성된 ‘현미력&유산균 패키지’가 주목받고 있다.

유산균 플러스는 김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을 비롯해 코팅된 7종 복합 유산균 150억 마리가 함유돼 있으며 항알레르기·항콜레스테롤 등 효과로 특허받은 김치 유산균 추출물까지 함유됐다.

현미력은 유기농 현미미강을 바실러스균으로 미세하게 분해해 흡수율을 향상시킨 것이며 뇌 건강에 좋은 가바 성분도 공보다 무려 9배 이상 높다. 제품 문의: 080)745-9230(공휴일 상담가능) www.ilove62.com

/정영일기자



도시락 사들고 ‘미식소풍’ 출발

스시로한국·호토모토 등 ‘봄나들이 메뉴’ 경쟁

기온이 올라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봄이 왔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가 나들이족들을 타깃으로 한 ‘프리미엄 도시락’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방방곡곡의 산해진미를 담아낸 도시락부터 건강을 위한 저염·저칼로리 재료로 만든 건강식 도시락까지 다양하다. 봄나들이의 즐거움을 배가 시켜줄 다양한 구성과 가격, 스타일로 무장한 영양만점 ‘프리미엄 도시락’을 알아본다.

스시로한국은 최근 스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누름초밥 도시락’을 선보여 인기다. 이 도시락은 새우·장어에 아보카도·양배추·오이 등의 그린푸드를 더해 담백한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킨다. 총 8조각으로 구성됐으며 기호에 따라 2가지 종류의 메뉴를 모두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6900원.

수제 도시락 브랜드 호토모토는 연어·새우·계란말이·불고기·채소덴푸라 등의 재료를 취향대로 구성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도시락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특선메뉴’ ‘정식메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선메뉴인 ‘맞춤도시락’은 국내 저가형 도시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연어구이’가 통째로 들어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은 1만~2만원대.

CJ푸드빌의 비비고는 샐러드 타입의 건강식 도시락인 ‘비비고 라이스’를 출시했다. 백미 대신 소화 흡수가 빠르고 다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현미로 전환해 주문과 배달이 가능하다. 두부·제육불고기 등의 토핑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스로는 레몬간장·쌈장·참깨·고추장 등 선택이 가능하다.



스시로한국의 ‘누름초밥 도시락’.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품관인 ‘SSG 푸드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조선호텔 도시락은 호텔 셰프가 직접 조리한 프리미엄 럭셔리 도시락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한식·중식·일식은 물론 죽·비빔밥·김밥까지 1만원대부터 최대 7만원대까지 도시락의 종류와 가격 선택의 폭이 넓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설목장 유기농 우유’ 이마트서도 판매 삼립식품(대표 윤석춘)이 기존 SPC그룹 브랜드 매장과 일부 백화점에서만 판매되던 ‘설목장 유기농 우유’ 2종을 이마트에 출시했다. 설목장 유기농 우유는 강원도 평창군 해발 1000m에 위치한 대관령 청정지역 설목장에서 엄격한 유기인증기준으로 관리해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0㎖(1800원), 750㎖(5200원) 2종이며 이마트 자연주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삼립식품 제공

더 부드러워진 국민맥주 ‘뉴 하이트’

하이트진로 세계 시장 겨냥 리뉴얼

하이트진로의 대표 맥주 브랜드 ‘하이트’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화한 맛과 정통성을 강조한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4월 3일, 80년의 양조 기술 노하우를 집약해 맥주 품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전면적인 리뉴얼을 단행한 ‘뉴 하이트(New hite)’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 디자인뿐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전 부문에 걸쳐 신제품 수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회사 측은 세계 유수의 전문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맥주와 맞설 최상의 목 넘김, 새로운 맛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뉴 하이트는 하이트진로가 구축한 월드비어얼라이언스(WBA)를 통한 공동 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1월부터 독일 맥주 전문 컨설팅 업체인 ‘한세베버리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뉴 하이트는 새로운 맛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조 공정을 조정해 쓴맛을 줄였고 홉·몰트·탄산의 최적 조합을 통해 청량감을 강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 알코올 도수도 4.3%로 조정했다.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전 공정의 온도를 0도 이하로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에서 맥주의 불순물과 잡미를 제거하는 ‘빙점여과공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뉴 하이트의 BI(Brand Identity)와 상표 디자인도 교체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은 “이미 글로벌화된 국내 맥주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나서기 위해 최고 품질의 맥주로 승부하고자 대표 브랜드인 하이트를 이름만 빼고 모두 업그레이드했다”며 “하이트는 20년간 300억 병 이상이 팔린 한국 대표 맥주로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덕성여대 ‘일상충동’전

덕성여자대학교(총장 홍승용) 예술대학이 다음달 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일상충동(日常衝動)’을 주제로 한 교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현대인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하루하루 긴장된 삶을 경험하고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인이 매일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창조의 원천’인 ‘일상충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예술과 일상의 넘나들기를 시도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덕성여대 예술대학 소속의 시각디자인·텍스타일디자인·실내디자인·의상디자인·동양화·서양화 등 6개 학과 총 16인 현직 교수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웰치 파머스픽 주스 곧 출시

농심은 30일 풍부한 과즙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웰치 파머스픽(farmer’s pick) 주스를 4월 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과일 본연의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프리미엄 주스로서 갓 짠 듯 진한 맛과 풍미가 특징이다. 포도와 사과 맛 등 두 종류로 구성됐다.



하면 할수록
터지는
상상이나 했니?
반전연애 보고서 연극
스캔들
★누려라!★ 일요일엔 스캔들과 함께 스트레스 팍! 웃음팡팡!!
Happy Sunday 50% 할인! 전석 15,000원
★ 온라인 예매시 적용 / 문의 : (주)악어컴퍼니 02-764-8760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
대학로 A아트홀 2011년 9월 30일 - OPEN RUN 평일 5시 8시/토 2시 4시 6시10분 8시10분/일 2시 4시 6시10분

문상 온듯 올블랙·야릇한 시스루 안돼

매너있는 하객이 피해야 할 옷차림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왔다. 이맘때면 정작 결혼식을 하는 신랑·신부보다 하객들의 패션에도 관심이 커진다. 이 때문에 '결혼식장에 뭘 입고 가지?' 하는 고민이 쌓이기도 한다. 멋스러운 하객 패션도 좋지만 결혼식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민폐 하객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하객 패션 매너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올 화이트룩, 신부에게 양보를

결혼식 하객이 입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 중 한 가지는 상·하의를 모두 하얀색으로 입는 것이다. 결혼식에서 백색은 신부의 상징이며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돋보여주는 색이다. 특히 기념사진 촬영 시 하객이 흰색 옷을 입고 가면 돋보여야 할 신부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흰색 옷은 피하는 것이 기본 매너다. 또 장례식에서 입을 법한 상·하의 검정색 의상도 결혼식에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나친 개성·과한 노출 금지

결혼식은 양가의 친지 어르신들도 함께하는 자리로 지나치게 개성을 표출하는 의상이나 노출이 많은 의상은 적절하지 않다.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미니스커트나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 블라우스, 가슴골이 드러나는 상의는 모두 금지다. 몸의 굴곡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옷도 마찬가지다.

◆발 뒤끝은 감추는 것이 예의

최근 결혼식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졌지만 예식은 기본적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의 경우 발 뒤끝이 드러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므로 뮬 구두(mule: 발뒤꿈치가 오픈돼 있는 슬리퍼 형태의 구두)는 자제하고 펌프스 구두(pumps: 퍼나 끈이 없고 발등이 파인 구두)를 신는 것이 좋다.

옥션 의류팀 서태미 부장은 "'하객 패션'이란 유행어가 만들어질 만큼 결혼식 의상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결혼식은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인 만큼 장소와 분위기를 고려한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윤달로 인해 유난히 결혼하는 커플이 많은 올봄에는 결혼식에 입지 말아야 할 의상 매너를 미리 파악해 센스 있는 하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멜론빙수 드세요" 디큐브백화점은 속을 파낸 멜론에 부드러운 눈꽃얼음과 동그랗게 모양을 낸 멜론 과육을 탑처럼 쌓아올린 멜론빙수를 판매 중이다. 일 한정 판매 메뉴로, 예년에 비해 일찍 따뜻해진 날씨 덕에 주말에는 3~4시간 만에 품절될 정도로 인기다. 4월부터는 1인용 멜론 컵빙수도 판매된다. /디큐브백화점 제공

자외선 막고 보습…화이트닝의 진화

멀티기능 신제품 잇따라



봄철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제품은 화이트닝 제품이다. 최근 뷰티 업계는 다크스폿을 완화하는 기본 기능은 물론 잔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겸비한 멀티 기능을 갖춘 화이트닝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비오템은 피부의 3가지 빛을 투명하게 밝히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화이트닝 효과와 함께 뛰어난 보습력을 가진 '3색 빛 수분크림'을 출시했다. 기존 화이트닝 제품의 단점이었던 건조함을 개선한 촉촉한 젤 텍스처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트라이벡틴의 '스트라이벡틴 WH™ 포토화이트 데이로션 SPF30'은 화이트닝 기능과 자외선 차단의 이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 검사를 완료해 인증을 획득했다. 비타민 A, B, C 성분의 감초 추출물이 해독 작용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을 촉진해 안티에이징 효과도 준다.

SK-II의 '셀루미네이션 데이서지 UV'는 활성 복합체 오라브라이트 칵테일 성분이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해줘 광채 화이트닝·보습·UV 차단 기능을 선사한다.

유소영 스트라이벡틴 BM은 "최근 SPF나 안티에이징 기능 등의 이중 기능성으로 편리함을 더한 화이트닝 제품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비오템 홍보 담당자 역시 "피부 표면을 밝히는 데 집중했던 기존의 화이트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피부 자체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 더욱 촉촉하고 환하게 관리하는 체계적인 화이트닝 케어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하프갤런'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배스킨라빈스 오늘 하루 해피포인트 카드 고객이 패밀리사이즈 사면 혜택

배스킨라빈스가 31일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31데이(DAY)' 행사를 벌인다.



배스킨라빈스의 31데이는 5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6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는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해 사이즈 업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패밀리 사이즈 권장 소비자가격인 1만9500원에 하프갤런 사이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하프갤런 사이즈 권장 소비자가격은 2만3500원).

배스킨라빈스 전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패밀리 데이'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1인당 총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 시 해피포인트 적립 및 타 쿠폰, 타 행사, 제휴 할인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며 모바일 교환권(패밀리·금액권)은 사용 가능하다(일부 점포 제외).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31데이는 31일이 있는 달에 진행되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행사로 꾸준히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을 위해 혜택을 드리고 있다"며 "이 행사에도 많은 고객들이 배스킨라빈스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

춘곤증 김대리, 스무디킹 한컵에 벌떡

환절기극복 건강기능식품

최근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에 피로감을 비롯해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 연령대별로 신체에 필요한 영양을 불어넣는 봄맞이 간편 음식들을 통해 춘곤증 극복, 피로 해소, 피부 건강 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봄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를 심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피로 해소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좋다. 대상웰라이프는 어린이용 '튼튼아이 맛있는 녹즙'을 선보이고 있다.



신진대사에 좋은 케일, 피로해소에 좋은 파인애플·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넣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도록 새콤달콤함을 더했다.

◆학생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견과류는 영양과 함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의 봄철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탐앤탐스의 '못난이 누가'는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꿀에 섞은 달콤한 간식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에너지 충전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직장인

바쁜 직장인이라면 휴식 시간 한 컵으로 간편하게 비타민을 채울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자.

스무디킹의 '오렌지 레볼루션 스무디'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와 파파야, 비타민 A·C·D가 들어있는 망고를 주재료로 해 과일의 건강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스무디다. 또 하루 필요한 비타민 A·C·E가 포함된 데일리 비타민 인핸서와 식물성 단백질 소이프로틴까지 생활 속에 필요한 영양 균형을 맞춘 다양한 성분이 함께 블렌딩돼 나른한 신체에 활력을 더해주고, 환절기 건강을 지켜준다. 스몰사이즈 기준으로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최대 140%까지 섭취가 가능해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정영일기자

희망을 노래하는 '맨발의 디바'

새 앨범 '스페로 스페레'로 돌아온 이·은·미

국민 디바 이은미(47)가 새 앨범 '스페로 스페레'로 돌아왔다. 2012년 미니앨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드라마'에 이어 2년 만이다. 이번 앨범은 희망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귀를 사로잡는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가슴이 뛴다' '마비' '해피블루스' '사랑이 무섭다' '괜찮아요' 등 5곡이 담겼다. '가슴이 뛴다'는 이은미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깊은 감성이 조화를 이뤄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 희망을 담다

'스페로 스페레'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은미는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도전정신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 자신을 비롯해 모두에게 도전하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슴이 뛴다'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후의 애틋한 마음이 이은미의 연륜과 어우러진 곡으로 윤일상이 작곡했고 그와 이은미가 공동 작사했다. 멜로디는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노랫말은 희망을 담고 있다.

"'가슴이 운다'는 테마가 강렬했는지 딱 맞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가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윤일상씨가 '그냥 누나 이야기를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는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불안감, 고민을 편안하게 담으라는 거였죠. 그렇게 완성된 '가슴이 뛴다'는 슬픈 노래에서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 아날로그 감성 유지

1990년대 LP판부터 테이프, CD 등 모든 앨범 작업을 경험했던 그는 이번 앨범에 아날로그 감성을 담았다. 그러나 높은 완성도는 놓치지 않았다.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음악은 맑아졌지만 소리 사이를 움직여 다니는 공기의 느낌은 사라졌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디지털화됐지만 아날로그 소리를 표현하고 싶었죠. 1.5%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감성을 담기 위해 이은미만의 녹음 방법을 선택했다. "보통은 파트별로 반주를 따로 녹음하지만 저는 밴드와 함께한 녹음실 부스에 들어가 서로의 악기 밸런스를 맞춰 작업했어요. 과정은 힘들지만 모두 만족했죠."

음원 발표 전 앨범을 발매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1990년대에는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랬다"며 "추억으로 남은 당시 기억을 팬들과 느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 5~6월 투어 나서

이은미는 1989년부터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 활동하다 1992년 1집 '기억 속으로'를 발표하고 데뷔했다. 타이틀곡 '외면'을 비롯해 총 9곡이 담겨있었다. 다음해에는 2집 '어떤 그리움'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당시 '맨발의 디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타이틀곡 '가슴이 뛴다' 애절한 멜로디+깊은 음색
아날로그 감성도 담아… 데뷔 25년 "후회없는 무대"

"2집이 나오자마자 공연을 시작했는데 11일 동안 22번의 공연을 했어요. 공연 5일째를 맞으면서 목소리도 안 나왔죠. 대기실에 앉아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순간 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제는 저 자신을 누르고 있는 욕심 때문이었죠. 그때 액세서리를 풀고 찢어진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맨발로 무대에 올랐는데 자유로움을 느꼈죠. 피를 흘리면서 앙코르곡을 부르기도 했어요."(웃음)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롭고 싶던 첫걸음은 '맨발의 디바'라는 이은미를 대표하는 수식어로 발전했다. 이제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만의 고유명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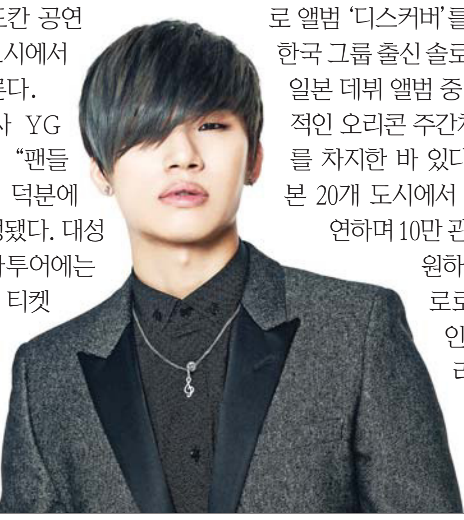
25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지금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새로운 음반이 나왔으니 5~6월경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네오비즈컴퍼니 제공·디자인/박은지

대성 日 부도칸 공연 추가

일본 아레나투어에 나서는 빅뱅의 대성(사진)이 부도칸에서 추가 공연을 한다.

6월 11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D-라이트 투어 2014 인 재팬'의 막을 올리는 대성은 고베 월드 기념 홀, 마린멧세 후쿠오카 등에 이어 7월 18일 부도칸 공연까지 총 7개 도시에서 13회 공연을 치른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추가 공연이 결정됐다. 대성의 이번 아레나투어에는 20만 건이 넘는 티켓 신청이 몰렸고 투어 파이널이었던 부도칸 공연에는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티켓 신청이 쇄도했다"며 "대성은 총 7개 도시에서 13회 공연을 하며 13만8000명의 관객과 만난다"고 밝혔다.

투어 종료에 맞춰 7월 16일에는 일본에서 새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대성은 지난해 초 일본에서 솔로 앨범 '디스커버'를 발매해 한국 그룹 출신 솔로가수의 일본 데뷔 앨범 중 최고 성적인 오리콘 주간차트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일본 20개 도시에서 26회 공연하며 1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솔로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순호 기자

무한도전 게스트 효과 끝?

아이돌 바로·정일우 등장에도 동시간대 예능 꼴찌 추락

탄탄한 마니아층을 자랑하는 MBC '무한도전'(사진)이 시청률에서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방영된 MBC '무한도전'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10.7%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대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꼴찌로 추락했다.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가 13.4%,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 11.5%를 기록했다.

올해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무한도전 응원단'의 첫 번째 이야기로 꾸며진 이날 방송은 6월 브라질 월드컵 원정 응원을 위해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응원단으로 섭외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아이돌 그룹 B1A4의 바로와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준하와 부자 관계로 나왔던 배우 정일우, 최근 드라마 '상속자들'로 큰 인기를 얻은 박신혜 등이 등장했다.



그동안 '무한도전'은 게스트 출연 유무에 따라 시청률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명 '무도 마니아'들은 게스트 없이 '깨알 재미'를 선사하는 '무한도전'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실제 시청률은 게스트가 등장했을 때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지난 1년간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특집은 유명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던 '자유로 가요제'편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지난해 '무한도전' 시청률 상위 10개 편 중 게스트 없이 진행한 방송은 '하와이 특집'과 '관상 특집' 단 두 편뿐이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게스트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오히려 지난 한 달 평균(11%대)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게스트 출연이 시청률을 담보한다는 공식마저 깨진 셈이다.

내년이면 방송 10주년을 맞이하는 '무한도전'이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으려면 게스트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닌 출연진만으로 큰 재미를 선사했던 초창기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슈주-M 중국 음악프로그램 1위

슈퍼주니어-M(사진)이 중국 최초의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첫 1위의 영광을 안았다.



세 번째 미니앨범 '스윙'을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슈퍼주니어-M은 29일 중국 전역에 생방송된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음반 발매 일주일 만에 압도적인 차로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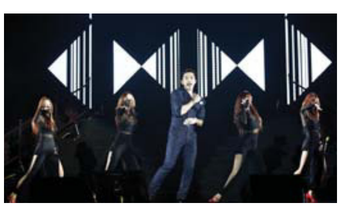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ARS 투표, 온라인 투표, 음악 사이트 점수 등을 합산한 사전 점수는 물론 휴대전화 투표, QR코드 투표 등 방송 당일 진행되는 생방송 투표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만큼, 이번 1위 등극은 중국 전역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주니어-M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신곡 '스윙'은 R&B와 일렉트로 사운드가 어우러진 팝댄스곡이다. 업무나 일상에서 힘들고 지친 감정을 멋지게 날려버리자는 가사에 맞게 책상과 의자 등을 활용한 일명 '오피스 퍼포먼스'로 눈길을 끈다.

슈퍼주니어-M은 27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28일 KBS2 '뮤직뱅크', 30일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하며 한국 활동에 돌입했다. /유순호기자

섹시하고 부드러운 비

中 쇼케이스 8000명 열광



비 베이징 쇼케이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비가 4년 만에 중국 팬들과 다시 만났다.

비는 지난 28일 베이징 내셔널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현지 팬 8000여 명의 환호 속에 '레인 이펙트'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쇼케이스는 지난 1월 발매한 여섯 번째 정규음반 '레인 이펙트'를 중국에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비가 중국에서 약 4년 만에 단독으로 가진 무대였다.

비는 6집 타이틀곡 '30 섹시'와 '라 송'으로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디어 마마 돈 크라이'와 '마릴린 먼로' 등으로 부드러운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히트곡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잇츠 레이닝' '힙송' 등을 차례로 불러 팬들의 호응에 답했다.

가수 겸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는 최근 중국 7대 거장 감독으로 꼽히는 가우시시 감독의 '노수홍안'에 캐스팅돼 중국 여배우 유역비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 비는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노수홍안'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비는 지난 27일 중국 음악 시상식인 '큐큐 뮤직 어워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해 식지 않는 인기를 확인했다. /김지민기자



김수현이 29일 태국 방콕 스완나품 공항에 들어서자 2500여 명의 팬들이 뜨겁게 환영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역대 태국 방문 해외 스타의 입국 중 최다 인파가 이날 몰렸다. /키이스트 제공

"김수현 보자"… 방콕 공항 밖 수백m 줄

태국 팬미팅 2500명 몰려

태국 방콕의 주말이 한류 열기로 달아올랐다.

아시아 곳곳에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몰고 다니는 김수현(사진)은 팬미팅 '2014 김수현 아시아투어 1st 메모리즈 인 방콕'을 위해 29일 오전 방콕 스완나품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내부 수용 가능한 인원인 1500여 명이 공항 2층과 3층 난간에까지 빼곡히 둘러섰고, 주최 측 추산으로 2500여 명의 팬들이 김수현을 보기 위해 공항 안팎에 몰려들었다.

공항 내부에 들어오지 못한 1000여 명의 팬들은 청사 밖에 수백m 줄을 지어 김수현을 환영했다. 입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지 방송과 신문·잡지 등에서 나온 취재진들은 공항과 기자회견장에 몰려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역대 태국을 방문한 해외 스타 환영 인파 중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몰려들었다"고 현지 공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김수현은 30일 방콕 로열 파라곤홀에서 팬미팅을 진행했고, 이날 행사의 티켓 3000장은 지난달 판매 시작 2분 만에 매진됐다.

◆FT아일랜드 가는 곳마다 팬 행렬

이에 앞서 FT아일랜드는 2014 라이브투어 'FTHX'를 위해 27일 현지에 도착했다. 팬들은 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웠고, 현지 언론은 입국 장면을 생중계했다. 28일 토크쇼 출연을 위해 방문한 TV3 방송국 앞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리는 등 가는 곳마다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FT아일랜드는 이런 열기를 몰아 29일 방콕 바이텍홀에서 콘서트로 현지 팬들을 사로잡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라이브 투어를 마무리한 FT아일랜드는 다음 달 2일 일본에서 13번째 싱글 '미체험 퓨처'를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suno@



39
있는 것들은 모르는 팔자극복 로맨스!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흠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

버나드 박·권진아·샘 김 'K팝스타3' 톱3 진출

'K팝스타3'의 버나드 박, 권진아, 샘 김이 톱 3로 확정됐다.

30일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3'에선 세미파이널 진출권을 두고 권진아·샘 김·짜리몽땅(사진)·버나드 박이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 점수 60%, 시청자 투표 40%로 이루어진 톱 3 결정전에서 짜리몽땅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열창했으나 심사위원 점수에서 280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시청자 투표에서도 역전하지 못한 짜리몽땅은 결국 아쉽게 탈락했다.

짜리몽땅의 박나진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버나드 박은 리처드 막스의 '라이트 히어 웨이팅'을 불러 299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해 가장 먼저 톱 3에 진출했다. 권진아는 '십년이 지나도'로 292점을, 샘 김은 '스탠 바이 미'로 284점을 받고 차례로 톱 3에 올랐다.

/김지민기자



포미닛 '인기가요' 1위 올라

걸그룹 포미닛(사진)이 소녀시대와 2NE1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30일 SBS '인기가요'에서는 소녀시대와 2NE1·포미닛이 1위 후보에 오르며 걸그룹 삼파전을 예고했었다. 이날 포미닛은 신곡 '오늘 뭐해'로 소녀시대의 '미스터미스터', 2NE1의 '컴백홈'과 함께 1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컴백 무대 후 일주일 만에 1위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쟁쟁한 선배인 소녀시대와 데뷔 동기 2NE1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포미닛 멤버들은 예상치 못한 듯 어리둥절해하다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포미닛은 "소속사 식구들과 가족들,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늘 뭐해'는 지루한 일상을 탈출해 특별한 재미를 찾는 사람들과 신나게 놀아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미닛만의 톡톡 튀는 매력이 돋보이는 곡이다. /김지민기자





MBC 일일드라마 '엄마의 정원'.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막장 러브라인 판치는 드라마

형제·자매 엇갈린 사랑 '엄마의 정원'·사촌 삼각관계 '내 손을 잡아' 등 눈살

요즘 안방극장에 방영 중인 드라마들이 형제·자매나 사촌 간의 삼각관계 혹은 사각관계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7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엄마의 정원'은 동복 자매와 재벌가 형제의 엇갈린 사랑이 주요 줄거리다. 여주인공인 윤주(정유미)는 재벌가 자제인 성준(고세원)과 중매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그런데 윤주의 동복 자매인 수진(엄현경)은 성준의 애인이고 성준의 동생 기준(최태준)은 윤주를 좋아하게 되는 등 두 집안의 형제와 자매끼리 얽히고 설킨 사랑을 하게 된다.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에도 사촌 간의 삼각관계가 나온다. 연수(박시은)가 전남편인 정현(진태현)의 사촌인 주원(이재황)과 사랑하는 사이로 그려진다.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자매와 사촌을 사각관계로 엮었다. 자매인 들임(다솜)과 수임(황선희)은 동시에 현우(백성현)를 좋아했고, 들임은 현우와 현우의 사촌 상현(곽희성) 둘 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다행히 수임은 동생을 위해 현우를 포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상현은 현우를 향해 "더 이상 내 형제가 아니다"며 주먹질까지 했다.

지난해 방영된 MBC '금 나와라 뚝딱', KBS2 '루비 반지'에서도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삼각관계로 엮인 적이 있는 등 이 같은 설정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게다가 이들 작품들은 하나같이 드라마의 흔한 장치인 출생의 비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출생의 비밀로도 모자라 형제·자매 간의 삼각관계마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공식처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청자들은 이 같은 작위적이고 자극적인 설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들이 더욱 막장의 끝까지 가고 있다. 형제·자매끼리 애인을 빼앗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인 듯 담아내 보기 불편하다"고 우려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김희애·유아인 다시 피아노 교감

'밀회'서 오늘 연주장면

키스신보다 더 야릇한 분위기로 화제를 모았던 김희애와 유아인의 피아노 연주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

31일 방송되는 JTBC 월화극 '밀회'(사진) 5회에선 오혜원(김희애)과 이선재(유아인)가 어색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피아노 앞에 앉는다.

지난 방송에서 선재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후 피아노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생각에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혜원은 선재에게 피아니스트 스비야토슬라프 리흐테르의 회고전을 보내고 이를 읽은 선재는 '돌아와라. 너는 나의 가장 뛰어난 제자다'라는 문구를 보고 돌아간다.

혜원을 마주한 선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키스를 퍼부었지만 혜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차갑게 밀어낸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선재는 다시 뛰쳐나갔다 사고를 내 유치장 신세가 된다. 혜원의 남편인 강준형(박혁권)이 위기에 처한 선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어색해진 혜원과 선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준형 세 사람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됐다.

5회에 등장하는 듀엣 연주는 어색해진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5회에 등장하는 듀엣곡은 정성주 작가가 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라며 "이번 곡 역시 두 사람의 감정과 극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 2회에서 혜원과 선재가 연주했던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판타지아'는 서정적인 전개와 강렬한 클라이맥스가 돋보이는 곡으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선이 잘 드러나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이문세 '참 좋은 시절' OST



가수 이문세(사진)가 8년만에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그는 29일 방송에서 공개된 KBS2 주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의 메인 테마곡 '슬픔이 지나고 나면'을 불렀다. 이 곡은 강동석(이서진)과 차해원(김희선)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상황에 등장해 감정을 극대화했다.

이문세는 2006년 방송된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의 주제곡 '알 수 없는 인생'을 빅히트시킨 이후 다시 OST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이문세는 방송이 나간 후 트위터에 "'슬픔도 지나고 나면' 좋았나요. 슬프지만 아름다운가요. 제 노래입니다"라고 직접 노래를 홍보했다.

한편 브랜드 콘서트 '대한민국 이문세'를 진행 중인 이문세는 29일 20번째 도시인 경기 안양에서 공연을 열고 4000명의 관객과 만났다. 지난해 6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4만 관객을 동원한 그는 총 23개 도시에서 16만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공연은 5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어벤져스2' 철통보안… 큰 혼잡 없었다

서울 첫 촬영 어땠나

마포대교 180명 병력 배치… 망원경 들고온 극성팬도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서울 첫 촬영이 30일 큰 혼잡 없이 마무리됐다.

첫 촬영지인 마포대교는 양방향 통행이 제한된 데다 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구경을 위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분한 모습이었다.

현장은 철통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은 오전 6시부터 마포대교 양측뿐만 아니라 마포역과 여의나루역 일부 출입구 통행도 제한했다. 마포대교 양측에 각각 2개 중대(18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촬영 장비를 실은 5t 트럭 30여대는 마포대교 북단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불교방송 앞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 2개 차로를 막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센터 관계자는 "오후 들어 나들이 차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평소 일요일보다 통행량이 적은 편"이라며 "신촌로터리와 공덕로터리 등 길목에서 우회를 안내하고 영화 촬영에 대한 홍보가 잘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촬영 현장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달려온 시민 수십 명이 있었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망원경을 챙겨 새벽부터 나온 일부 극성 팬들 역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한산한 현장과 달리 인터넷은 '어벤져스2'로 떠들썩했다. 촬영 현장이 마포대교 북단에 설치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했고, 공단 측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오전 11시부터 화면 송출을 막았다.

그런가 하면 오후 2시께에는 마포대교 아래 강물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영화 관계자가 강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어벤져스2' 측은 영화 촬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어벤져스2' 서울 촬영은 다음달 13일까지 상암동 DMC, 청담대교, 강남대로, 강남 탄천주차장, 문래동 철강단지 등에서 진행된다.

/김민준·탁진현기자 mjkim@metroseoul.co.kr



30일 오전 '어벤져스2' 국내 촬영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포대교는 이날 오전부터 전면 통제됐다. /뉴시스

반격 나서는 한국 영화

'가시' '표적' '역린' 등 다음달 줄줄이 관객맞이



극장가를 점령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한국 영화가 반격을 시작한다.

'노아' '논스톱' '300: 제국의 부활'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장혁 주연의 '가시', 정재영 주연의 '방황하는 칼날', 류승룡 주연의 '표적', 현빈 주연의 '역린'(사진) 등이 다음달 줄줄이 개봉한다.

다음달에도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가 개봉하는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공세가 계속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대부분 기대작들이라 상황 반전을 노려볼 만하다.

'가시'는 장혁의 파격 멜로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표적'은 막강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류승룡의 액션 도전이라는 점에서, '역린'은 현빈의 군 제대 후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다만 개봉 날짜가 몰려 한국 영화끼리 경쟁이 불가피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가시'와 '방황하는 칼날'이 다음달 10일, '표적'과 '역린'은 다음달 30일 나란히 개봉해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펼친다. /탁진현기자 tak0427@

'백프로' 윤시윤 "500만 넘으면 여진구와 핫팬츠 입고 댄스"

다음달 3일 개봉할 영화 '백프로'(사진)의 윤시윤과 여진구가 훈훈한 사제지간의 '케미'로 여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백프로'는 전교생이 6명뿐인 섬마을 학교에 얼렁뚱땅 머물게 된 전직 프로 골퍼 백프로(윤시윤)가 폐교 위험에 처한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반항아 이병주(여진구)를 비롯한 아이들과 만나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3년 전 제작돼 윤시윤과 여진구의 앳된 모습이 인상적인 이 영화에서 두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남남커플로 출연해 남녀 커플 못지않은 호흡을 자랑한다.

슬럼프를 겪던 중 졸지에 섬마을 선생이 된 백프로와 그에게 늘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어느새 마음을 열고 골프에 재능을 발휘하는 이병주의 모습이 풋풋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기대감을 품게 한다.



2003년 시골로 좌천된 촌지 선생과 순박한 마을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그린 차승원 주연의 '선생 김봉두'와 2011년 선생으로 인해 변해가는 반항아의 성장담으로 5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김윤석·유아인 주연의 '완득이'와 마찬가지로 사제지간의 따뜻한 정을 그려 더욱 눈길을 끈다.

27일 열린 '백프로' 제작발표회에서 윤시윤은 영화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여진구와 함께 핫팬츠를 입고 걸그룹 댄스를 추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탁진현기자

3D 조선 역사다큐영화 보러 갈까

'의궤, 8일간의 축제' 다음달 17일 개봉

KBS가 제작한 3D 역사 다큐멘터리 '의궤, 8일간의 축제 3D'(사진)가 다음달 17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 영화는 조선 22대 국왕인 정조가 역사상 가장 성대한 축제를 기획하고 8권의 책에 그 모든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역사 기록물을 KBS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3D 기술로 고스란히 복원해낸 작품이다.

생소한 이름인 의궤란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국가 공식 기록물을 말한다. 영화 제작진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축제로 열린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3D 입체영상으로 복원해냈다.

제작진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의궤를 사실적으로 영상화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200년 전 한 왕이 전해주는 지혜를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전국 CGV 3D관에서 상영된다. /탁진현기자

공립영화관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재개관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사진)가 29일 재개관했다.



국내 최초 공립 영화관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 영화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개관 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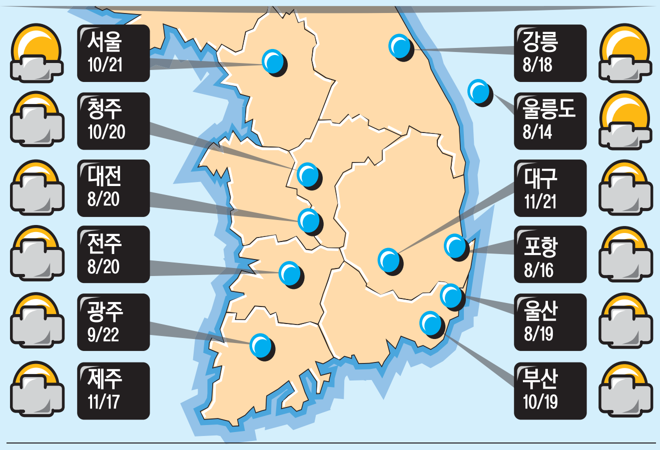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는 영화관과 미디어센터 아리랑정보도서관을 한 건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영화 문화 향유와 지역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12년 9월 성북구청 출연기관인 성북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바뀐 뒤 리노베이션 공사를 해 상영 환경을 업그레이드했다.

재개관한 센터는 공유 서가, 카페테리아, 키즈존과 같은 문화편의 시설이 신설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관람 편의 환경이 조성됐다. 개봉영화관(181석), 어린이가족관(164석), 독립영화전용관(127석), 마을방송스튜디오라는 네 가지 큰 틀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탁진현기자

날씨

3/31 月 일출시각 06:20 일몰시각 18: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뇌졸중은 일교차가 큰 봄에 발병하기 쉽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보약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2	5		8	4			
				2				
	4	3				7		
9		6			2		3	8
5				9				7
4	7		5			6		2
		4				2	5	
				4				
			8	5		4	1	9

			6		1	8		
	1					2	3	
5		6		2				4
	9		5	7				
7			9		4			2
				6	3		5	
8				3		5		1
	3	2					7	
		5	7		8			

스도쿠 정답

7	2	5	3	8	4	9	6	1
6	9	1	7	2	5	3	8	4
8	4	3	1	6	9	7	2	5
9	1	6	4	7	2	5	3	8
5	3	2	6	9	8	1	4	7
4	7	8	5	3	1	6	9	2
3	8	4	9	1	7	2	5	6
1	5	9	2	4	6	8	7	3
2	6	7	8	5	3	4	1	9

3	2	7	6	4	1	8	9	5
9	1	4	8	5	7	2	3	6
5	8	6	3	2	9	7	1	4
6	9	1	5	7	2	4	8	3
7	5	3	9	8	4	1	6	2
2	4	8	1	6	3	9	5	7
8	7	9	2	3	6	5	4	1
1	3	2	4	9	5	6	7	8
4	6	5	7	1	8	3	2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곰신은 담담해



임경선의 모·놀·로·그

친한 후배의 남자친구가 얼마 전 군대를 전역했다. 후배의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함께 배웅하는 웃기지만 슬픈 그 전형적인 상황이나 입대 후 애틋한 첫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것이 꽤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제대라니 놀랍다.

솔직히 말해 도중에 깨질 줄 알았다. 나는 어디까지나 그 후배와 친하지 그 남자친구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게다가 남자는 학생, 여자는 사회인, 하물며 여자가 한참 연상인 커플이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라고 대놓고 말하진 못 하지만 소심하게 '무리하지 마' 라고 은근슬쩍 속삭였던 것도 같다. 사랑을 초지일관 지켜낸다며 이 악물고 다른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것도 안쓰러웠고 그녀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성실히 기다려냈다. 대단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담담하다. "내 나이가 많아서 차라리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주변에서 말리는 연애들이 참 많다. 종교로 갈등하는 연애, 차이 나는 학벌의 연애, 가난한 상대와의 연애, 그중에서도 '군인과의 연애'는 어차피 시간이 자연스레 '해결'해준다는 면죄부마저 곁들여진다. 인생 선배들은 자기 체험담을 바탕으로 조언, 충고 혹은 오지랖을 떤다. 하지만 '나이 많은' 그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한계를 반영한 이야기'임을 알 만큼 성숙했던 것이다.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한계가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지, 내가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빌려 내 두려움의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지 구분조차 못 했을 것이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은 크다. 하지만 미리 후회할 것을 두려워하며 내리는 섣부른 선택이 아니라 돌아보면 후회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의 '나의' 마음을 따라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리라. 군대를 아직 안 간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혹은 사랑하게 될 여자들은 수두룩하다. '어차피 잘 안 될 일을 뭣 하러 하니'라고 그들에게 말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동업 중인데 분리 가능할까 투자 회수도 독립도 어려워

달별사랑 남자 63년 8월 27일 양력 점심때

Q 동업하고 있는데 계속 저만 투자하고 상대방(위의 사주)은 출자하지 않고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격증도 있고 자기가 나를 자격증값도 많이 안 받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만저만 실망이 아닙니다. 4억원 정도 물렸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분리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는지요.

A 동업자는 '백호'의 형상으로 경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심과 독선으로 진실한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신용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도 내색 하나 하지 않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사주 용어로 식신상관(食神傷官)이 강하니 언행이 오락가락하고 정편관(正偏官)이 혼잡하여 계산 분별력도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간 돈은 찾을 수가 없으며 분리를 한다면 소송을 걸 수도 없을 정도로 사장이 계약을 불분명하게 하여 승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잘못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분리를 하기도 속수무책이고 떠나보내고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려운 저조한 운세입니다.

봉사하며 여생 지내려는데 하반기 운이 상승기류탈듯

58솔개 남자 58년 11월 26일 음력 새벽 4시

Q 항상 없는 살림에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만 공허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즐거움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삶은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지하철에서 읽다 보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궁금해 보냅니다.

A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명석한 이성을 지녔으며 천문성(天文星)으로 아는 것도 많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두뇌도 명석하고 예감이 빠르며 외향으로는 맑고 건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주학을 마냥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취미로 공부하십시오. 지혜는 있으나 지속성이 부족한 편이며 싫증을 느끼고 후회도 많을 터이나 이상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게 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운이 상승하는 기류를 타게 되며 생일지에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어 전화위복, 천우신조하는 길명이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31일 (음 3월 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기분은 품격 있게 풀어라. **60년생** 잘난 동료가 마음 흔든다. **72년생** 귀인이 곧 오니 조금만 더 힘내자. **84년생** 직장인은 고집부리면 공공의 표적된다.

소 **49년생** 할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다. **61년생** 가시적 효과가 없는 일은 접어라. **73년생** 파벌 싸움에 휘말리면 잃는 게 많다. **85년생** 감정이 상해도 민감한 반응은 금물~.

호랑이 **50년생** 가슴 졸이던 일은 성사~. **62년생** 배우자 덕에 대리만족할 경사가 생긴다. **74년생** 말썽 소지 있는 일에서 발 빼라. **86년생** 마음이 끌리는 이성과 마주한다.

토끼 **51년생** 끝까지 믿으면 웃는다. **63년생** 위조된 문서에 속지 않도록 조심~. **75년생** 땀 흘린 일은 성과 없어 아쉽다. **87년생**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자던 야망도 꿈틀~.

용 **52년생** 갈 곳이 많아 바쁘구나. **64년생** 생각도 못 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76년생** 동료의 실수는 쿨하게 용서하라. **88년생**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즐겁다.

뱀 **53년생** 통 큰 용단이 필요한 날이다. **65년생** 행복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77년생** 모두가 답이라고 말한 곳엔 답이 없다. **89년생** 소개팅 제안받고 설렌 하루~.

말 **42년생** 탐색전은 적당할 때 끝내라. **54년생** 얌체족 이웃 때문에 속 끓는다. **66년생** 문서 일은 내일을 생각한 후 결단 내려라. **78년생** 솔직한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

양 **43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55년생** 경험을 공유할 벗이 있어 즐겁구나. **67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9년생** 역할 분담했으면 역할에만 충실할 것.

원숭이 **44년생** 어른의 위엄이 필요한 날~. **56년생** 요령만 잘 부리면 일은 쉽게 풀린다. **68년생** 말을 아끼는 사람이 귀인이니 잘 살펴라. **80년생** 남쪽으로 가면 웃을 일 생긴다.

닭 **4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7년생** 문서 일은 큰 이익 기대 마라. **69년생** 모처럼 일이 뜻대로 풀려 유쾌하다. **81년생** 초목에 비가 내려 즐거운 비명~.

개 **46년생** 말썽 많은 일엔 발 빼라. **58년생** 흉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반전된다. **70년생** 배우자의 엇박자 행보에 심란~. **82년생** 바라던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돼지 **47년생** 공돈이 생겨 한턱낸다. **59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만사형통~. **71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3년생** 조금 모자라더라도 만족할 것.

나바로·조쉬 벨 쾅! 쾅!… 용병 홈런전쟁 뜨겁다

프로야구 개막 이틀째

LG 임지섭 프로 데뷔 첫승… '조인성 역전타' SK, 넥센에 설욕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경기에서 3회초 LG 조쉬벨이 2점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올 시즌 프로야구 최대 변수로 예상됐던 외국인 타자들이 한국 무대 적응 시간도 필요 없이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2014 프로야구 개막 이틀째인 30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삼성의 야마이코 나바로는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올려 8-5 승리를 이끌었다.

나바로는 1회말 첫 타석에서부터 KIA 선발 송은범에게 좌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KIA가 3회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지만, 삼성은 4회말 KIA 안치홍의 실책 2개를 틈타 4-3으로 재역전했다.

삼성은 계속된 2사 1·2루에서 나바로가 좌월 2타점 3루타를 때려 6-3으로 달아났다. 전날 개막전에서 1점차 패배를 당한 삼성은 이날 승리로 통합 4연패에 시동을 걸었다. KIA의 외국인 타자 브렛 필도 6회초 좌월 1점 홈런을 날려 화력을 점검했다.

한화 이글스는 사직구장 개막전에서 외국인 선수 케일럽 클레이와 펠릭스 피에가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사직구장 개막 3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2회초 2사 뒤 만루 찬스에서 피에는 2타점 중전안타로 한국 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4회에도 2사 후 좌전안타를 친 뒤 2루 도루에 성공했고, 김태균의 후속타 때 득점을 기록했다. 피에는 결승타점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한화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응용 감독이 1선발로 내세운 클레이는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5⅔이닝을 5안타 2실점으로 막아 첫 승을 올렸다. 한화는 4-2로 승리했다.

LG 트윈스의 조쉬 벨은 2점 홈런을 때리며 깜짝 선발로 등판한 '고졸 새내기' 임지섭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임지섭은 149㎞의 강속구를 앞세워 5이닝 동안 삼진 2개를 포함해 3피안타 4볼넷 1실점으로 LG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두산 베어스를 14-4로 완파하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고졸 신인이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것은 2006년 류현진(한화) 이후 8년만이며 1991년 김태형(롯데), 2002년 김진우(KIA)를 포함해 통산 네 번째다.

문학구장에서는 조인성이 2점홈런과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린 SK 와이번스가 넥센 히어로즈에 6-4로 역전승했다.

한편 전날 개막전에서는 두산의 호르헤 칸투와 SK의 루크 스캇이 홈런을 터뜨리며 3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외국인 타자들의 맹활약을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30일

■잠실

L G	202	070	021	14
두산	010	001	200	4

△승 = 임지섭(1승) △패 = 노경은(1패) △홈런 = 조쉬벨 1호(3회2점) 이진영 1호(5회4점·이상 LG)

■문학

넥센	200	000	020	4
S K	100	200	03X	6

△ 승 = 박정배(1승) △ 세 = 박희수(1세이브) △ 패전투수 = 손승락(1패) △ 홈런 = 이택근 1호(1회2점, 넥센) 조인성 1호(4회2점, SK)

■대구

KIA	003	001	001	5
삼성	200	401	10X	8

△ 승 = 밴덴헐크(1승) △ 패 = 송은범(1패) △ 홈런 = 나바로 1호(1회2점,삼성) 필 1호(6회1점,KIA)

■사직

한화	020	100	100	4
롯데	000	011	000	2

△ 승 = 클레이(1승) △ 세 = 송창식(1세이브) △ 패 = 송승준(1패) △ 홈런 = 박종윤 1호(6회1점, 롯데) 고동진 1호(7회1점, 한화)

프로축구 전적 30일

인천	0	0	전남
제주	1	1	경남

△ 득점 = 송진형②(전23분·제주) 스토야노비치②(후18분·경남)

수원	1	0	부산

△ 득점 = 정대세①(후41분·수원)

레오 47점… 삼성화재 "멍군"

배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서 현대캐피탈 잡고 승부 원점

삼성화재가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 2차전에서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에 세트 스코어 3-1(19-25 35-33 25-21 27-25)로 승리했다. 28일 1차전에서 완패했던 삼성화재는 7년 연속 우승에 시동을 걸었다.

2차전에서는 '쿠바 특급' 레안드로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양 팀 통틀어 최다인 47점을 거두며 삼성화재의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 성공률은 53.75였다. 삼성화재는 세터 유광우(블로킹 3개)까지 가로막기에 합세하며 상대 공격을 봉쇄했다.

라이벌 팀답게 2세트에서는 선수들 간 신경전도 벌였고, 10차례나 듀스 상황을 벌이는 시소게임 끝에 33-33 동점에서 삼성화재는 유광우와 이선규의 연속 블로킹으로 세트 스코어를 더했다.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9차례의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 번을 제외하고 8번 우승(88.9%)했지만, 삼성화재는 2005~2006시즌 첫 경기를 내주고도 현대캐피탈에 3승2패로 역전 우승한 바 있다.

3차전은 다음달 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3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결정지은 삼성화재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전적 30일

삼성화재	3	1	현대캐피탈

류현진, 다저스 1선발로

오늘 본토 개막전 출격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사진)이 미국프로야구 최고액 연봉 구단인 LA 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올 시즌을 시작한다.

류현진은 31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미국 개막전 다저스 선발투수로 최종 확정됐다. 23일 호주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 시리즈 2차전에서 발톱 부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저스 제국'의 2014년 본토 1호 선발의 중책을 맡게 됐다.

류현진은 29일 30개의 불펜 피칭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의 출격 명령을 최종 통보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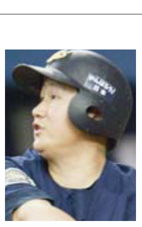
당초 다저스 선발 라인업은 31일 클레이턴 커쇼, 다음달 2일 잭 그레인키, 3일 류현진 순으로 정해졌지만 커쇼가 등쪽 통증을 호소해 류현진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LA타임스는 30일 "커쇼가 생애 처음 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매팅리 감독은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한 15일자 부상자 명단에 커쇼를 올렸다.

호주에서 일찌감치 시즌 첫 승을 챙긴 류현진은 본토 개막전은 물론 다음달 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개막전 선발로도 내정됐다. 류현진은 지난해 3선발로 뛴 메이저리그 2년차 투수로서 몰라보게 달라진 팀 내 입지를 증명한 셈이다.

2선발 잭 그레인키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샌디에이고전에 시즌 첫 등판하지만, 류현진은 다저스가 치르는 정규시즌 6경기에 3차례 등판해 다저스의 마운드를 최전방에서 책임진다. /유순호기자

역시 이대호… 3경기 연속 멀티히트



'빅보이'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가 세 경기 연속 멀티 히트로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갔다.

이대호는 30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지바롯데 마린스와의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28일 개막전과 29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린 이대호는 타율을 0.500에서 0.583으로 높였다.

1회말 첫 타석에서부터 중전 안타를 뽑아낸 이대호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우전 안타를 쳤다. 6회에는 내야 강습 타구로 연속 안타를 얻었고, 8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3년 200억원에 이대호를 영입하며 거포 부재를 씻어낸 소프트뱅크는 이날 3-2 승리를 비롯해 개막 3연승을 달렸다. /유순호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혜택 UP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항공권 +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료칸, ibis, Adagio호텔체인 할인제외)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더블 마일리지 적립

혜택 조건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할인 혜택은 반드시 전화로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조회시 이미 할인 적용 된 가격)
- 하나투어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 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더블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상품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시 추가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